

「성현공숙렬기」의 인물 형상에 대하여

김 종 철

- | | |
|-----------------------------|------------------------|
| 1. 서 론 | 1) 여성 수난과 규방 |
| 2. 가문의 이익 집단적 성격과 실천 윤리의 역할 | 2) 규방의 지기지우(知己之友) |
| 1) 혈연과 이익 | 3) 여성의 자존 의식과 규방에서의 갈등 |
| 2) 가문 내에서의 실천 윤리의 역할 | 4. 욕망의 세계와 악인형의 특징 |
| 3. 규방 세계와 여성 형상의 특징 | 5. 결 |

1. 서 론

17세기 이래 궁중과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읽히기 시작한 장편 소설들은 대개 그 내용이 귀족 집안 구성원들의 파란만장한 갈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소설사의 관점에서 볼 때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이 그리기 시작한 바 가족 단위의 귀족들의 생활상을 본격적으로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귀족의 집안과 그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생활 공간과 생활인으로서 소설에 등장했다는 점은 소설사의 전개에서 주목할 사항이다. 즉 사회 각 층과 부문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장편 소설들은 지배층의 생활을 그려냄으로써 평민이나 시정의 세계를 그려낸 소설들과 상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 장편 소설들 상당수가 연작(連作) 형식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이 방대하고 갈등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급 등장 인물도 다수여서 그 해석과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궁중이나 사대부가에서 주로 읽혔고, 충(忠), 효(孝), 열(烈)과 같은 유교의 덕목을 독자가 본받아야 할 가

치로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해서 간단히 보수 반동적인 소설이라 할 수는 없다. 귀족의 집안 역시 구체적인 생활 공간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며 이러저러한 일로 갈등하는 인간들 역시 구체적인 생활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장편 소설들에서 적지 않게 등장하는 부자(父子) 갈등이나 치밀하게 묘사되고 있는 규방 여성들의 의식은 다른 부류의 소설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점들은 사회상이나 의식 변화의 측면에서 심도있게 해석되고 평가될 사항이다. 다시 말해 장편 소설의 세계 역시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며, 그 세계의 등장 인물들은 각기 특정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들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이 글은 장편 소설 「성현공숙렬기」를 대상으로 등장 인물의 형상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현공숙렬기」⁽¹⁾는 명(明)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 재위 1403~1424)의 시대를 배경으로 성현공 임희린과 숙렬비 주씨의 파란만장한 사연을 중심으로 한 임씨 가문의 이야기로 그 후편(後篇)이 따로 있는 연작 소설의 하나이다. 작품의 마지막에 “초후 소설의 세세호 스적과 조손의 설화 희비호니 소유종말과 언유슈괴호를 알고져 홀진디 하회롤 남시후록을 초저 보시읍소서.”라는 기록이 있는데, 「남시후록」은 곧 「임씨삼대록」⁽²⁾을 말한다. 이 작품은 「성현공숙렬기」의 임씨 가문의 제3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현재로서는 「성현공숙렬기」의 구체적인 창작 연대나 작가를 알 길은 없다. 다만 후편 「임씨삼대록」에 「구운몽」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구운몽」 이후의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대체로 18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성현공숙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그 연작소설로서의 성

(1) 완질로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25권 25책본이,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20권 20책본이 소장되어 있고, 서울대 가람문고에 낙질의 1책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낙질의 2책이 있다. 규장각본은 매권 76면 내외, 매면 12행, 매행 22자로 달필의 궁체로 필사되었는데, 23권 38면 이후부터 매행의 자수가 27자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규장각본은 모두 3책으로 영인 출판되기도 했다.(김기동 편, 한국고전소설총서(1~3), 태학사, 1988) 그러나 이 영인본의 매면의 행수는 규장각본 그대로가 아니고 임의로 재편집한 것이다.

(2)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40권 40책과 39권 39책의 두 질이 소장되어 있다.

격⁽³⁾, 작품에 등장하는 정치적 갈등 및 계후(繼後) 갈등 등⁽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작품의 연작에 대한 관심은 주로 두 작품의 연계성과 연작의 원리 탐색에 중심이 두어졌다. 정치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이 작품에 명대(明代)의 실제 사건들, 즉 연왕이 조카 건문제를 밀어내고 제위에 오른 일과 영락제의 아들 고구가 모반을 한 일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이 작품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데 중심이 두어졌다. 계후 문제는 주로 적장자(嫡長子)의 계승 문제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18세기 이래의 조선사회의 가문 내에서 벌어진 계후 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의 탐색에 중심이 두어졌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인물 연구는 이상의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연구가 한 차례 있었다.⁽⁵⁾ 이 연구에서는 주로 임씨가문의 세대(世代)별 기능과 그 세대간의 수직적, 수평적 상호 갈등 양상이 연구되었다. 특히 후편인 「임씨삼대록」까지 아울러 3세대에 걸친 인물들의 세대별 특성과 가문 내에서의 역할의 차이점을 잘 밝혀내었는바, 제1세대는 가문 창달(家門 暢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세대는 가문 창달을 구현하며, 제3세대는 부귀를 향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그런데, 3대에 걸친 임씨 가문의 발전 과정을 조선 후기 재야(在野) 산림(山林) 또는 사림(士林)의 정계(政界) 진출로 해석한 것은 도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임씨 가문을 재야(在野) 사족(士族)에서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울러 제1세대 임한주와 임한규의 출처(出處)를 조선 후기 산림의 동향과 연결시킬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임씨 가문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기득권을 장악한 정치 세력과 대결하는 양상도 거의 없거니와 임한주의 정계 복귀는 영락제가 주도한 것이었다. 또 산

(3) 김기동, 성현공숙렬기와 임씨삼대록---이조연작소설연구(2), 어문논집(19·20) (고려대, 1977); 최길용, 성현공숙렬기연작, 조선조연작소설연구(아세아문화사, 1992);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4) 최길용,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갈등구조, 앞의 책; 문용식, 성현공숙렬기의 구성 기교와 갈등양상, 국제어문(11)(국제어문학연구회, 1990); 박영희, 18세기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갈등의 의미---「성현공숙렬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 1995.8

(5) 문용식, 가문소설의 인물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5

림(山林)은 조선 후기에 와서 벌열 및 세도 정권이 필요로 했던 존재였는데, 임한주 또는 임한규를 그러한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임씨 가문의 성격은 재론될 필요가 있고, 가문 내부의 중심 갈등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등장 인물의 성격 역시 가문창달(家門暢達)이라는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없다. 주요 여성 등장인물들의 의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희린, 세린, 유린 등 제2세대의 성격이나 의식 역시 가문 창달로만 평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후편인 「임씨삼대록」은 제외하고 「성현공숙렬기」만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두 작품은 연작 관계이지만 각각은 또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2. 가문의 이익 집단적 성격과 실천 윤리의 역할

1) 혈연과 이익

25책 분량의 이 장편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 갈등은 임씨 가문의 종통(宗統) 문제에서 유발된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이 작품의 정치적 갈등을 주목하기도 하는데, 기실 이 작품은 특정한 가문이 정치적 갈등을 헤쳐나가면서 그 기반을 확고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락제가 조카인 건문제를 내치고 제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임한주 형제가 취하는 태도는 건문제와 자신들의 군신 관계 때문은 아니다. 이들은 태조 때 등과했고 건문제 치하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았으니 영락제의 제위 찬탈은 그들에게 불사이군(不事二君)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⁶⁾ 아울러 이 작품의 서술자가 기본적으로 영락제의 제위 찬탈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임한주 형제의 진퇴에 주요한 쟁점이 되지 못한다. 다만 이들을 절의(節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는 인물로서 형상화하는 데 그칠 뿐이다.

(6) 임한주 형제의 외숙은 건문제 하에서 벼슬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망국터위라 차마 시 님군을 섬기지 못하거니와 질은 등은 건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무슨 날노 고집하리오.”(권1)

한편 이 작품에서는 임씨 가문이 정치적 파당을 형성하여 다른 파당과 대립하는 양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임씨 가문과 한왕 고구와의 대립을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이 작품의 중심 갈등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씨 가문 내부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한왕은 임씨 가문의 가변(家變)을 야기하는 여부인과 유린의 우익일 뿐이다. 한왕이 왕각의 난을 정벌하는 과정에 희린을 적에 투항한 인물로 날조하여 임씨 가문과 그 인척들이 금고에 처해지는 일이 있기는 하나, 그 정치적 반대파로서 한왕 외에는 정치적으로 이렇다할 비중이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지도 않거니와 그 외에는 기껏 희린과 적장자 자리를 다투는 유린과 희린의 재능을 시기하는 탄관옥 뿐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중심 갈등인 임씨 가문의 종통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 경우 임씨 ‘가문(家門)’이란 엄격히 말해 ‘가족’의 양상을 띤다. 작품 전반에 걸쳐 임씨로는 임한주, 한규 형제와 그 2세인 희린과 세린 등 직계만 등장하고 방계(傍系) 쪽의 일가(一家) 구성원의 등장은 없다. 다만 제3대까지 내려가면 자손이 크게 늘어나 가문이라 할 수 있을 뿐이다. 임씨 가문의 종통 문제는 장남인 한주와 부인 성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 차남인 한규의 장남 희린을 양자로 받아들여 종통을 잇게 했는데, 그 부인 성씨가 죽은 후 새로 맞이 한 부인 여씨에게 유린이 태어나면서 시작된다. 여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후취로 들어왔기는 하나 엄연히 적장자의 정실 부인이고, 또 그 아들을 낳은 만큼 가문의 적장자를 자기 소생인 유린으로 잇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린에게 폐질(廢疾)이 있다거나 하여 적장자가 될 수 없는 심각한 요인도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문 내에서도 적장자의 문제가 자연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태부인과 한규는 한주의 친생(親生)인 유린을 적장자로 하고 희린은 한규의 장남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주는 그렇다면 장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차자에게 적장자의 지위가 넘어가는 이른바 형망제급(兄亡弟及)의 논리를 들고 나와 스스로 적장자의 자리를 한규에게 넘기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주가 친생자 유린을 두고 양자인 희린을 적장자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애초 한주가 희린을 종손으로 결정한 것은 금갑신인의 몽중 지시 때문인데, 그 꿈에 의하면 희린은 공자(孔子)의 제자가 인세에 하강한 인물로 임씨 가문을 크게 융성할 인물이다.

금갑신 왈, “초선인조는 춘추난세의 공자의 일제조시니 이제 강제하여 흐느낀 탁세 비린 거슬 써서 성과를 보좌하고 돌흔 님시 누더를 연현하여 광치 구족의 미초리니 삼가 조심하여 마조시고 뉴미를 보실지라.(---)”(권1)

또 한주가 혈통상 적장자인 자기 친생 유린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유는 첫째 그 생모 여부인을 구밀복검(口蜜腹劍)의 인물로 파악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인물 됴됨이에서 유린이 희린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친생자인 유린이 태어난 뒤 적장자 결정 문제는 결국 태부인이 희린을 적장자로 재차 선언함으로써 종결되는데, 태부인의 결단은 문호를 흥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규의 희린을 거두고조 흐미 혼又 사랑흐미 아니라 너두를 상냥흐미오, 한규의 희을 넘장코져 흐른 소친조의 박하고 소박조의 후하여 인눈이 난흐미 아니라 당당한 공의로써 어진 거스로 세워 문호를 붓들고져 흐미니 너의 낭인이 혼닐도 스스로미 업는지라. 오죽 물시하고 노되 또흐 마음을 정흐엿느니 희린은 당당한 나의 종손이라 드시는 난언이 업게 하라.”(권1)

한주가 내두를 상량했다는 것은 곧 어진 자식을 적장자로 세워 문호를 빛내려는 것으로 그 점에서 사사로움이 아닌 당당한 공의인 셈이다. 그러나 장자의 친생자이면서 적장자의 자리를 이어받지 못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커다란 불이익이라 할 수 있다. 순수하게 혈통 위주로 본다면 당연히 친생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셈이니 양자를 세워 종통을 잇는 규범은 저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부인과 유린 모자는 가문 내의 논의가 혈통에서 보장되는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자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들의 제거 작업에 나선다. 희린을 거둬 암살하려 하거나 곤경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희린의 처가가 황실과 동성이면서 또 영락제의 즉위에 큰 공을 세운 이른바 평난(明史에서는 靖難)공신 집안이니 그의 커다란 우익이 되리

라 하여 부인 주소저도 제거하려 한다. 나아가 희린이 제거되어도 그 아들에게 종통이 계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승중(承重)의 경우를 막기 위해 창홍까지 제거하려 한다. 후일 여부인의 죄가 드러난 뒤 황제가 그녀를 사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주가 여부인을 굳이 죽이려는 것도 창홍까지 사지에 넣은 죄 때문이었다.

가문의 적통 문제는 한주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융성이라는 이익의 문제이다. 여부인이나 유린의 입장에서조차 적장자의 자리는 걸으로는 혈통의 입장에서 당연히 보장된 자리이기에 차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자리가 보잘 것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집요하게 추구했으리라 하고 볼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임문의 적장자 위치는 그것 자체가 가문 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체를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씨 가문을 이제 막 향리에서 중앙에 진출하는 사족(士族) 정도로 본다면 문호(門戶)의 흥기(興起)에 집중하겠지만 임씨 가문의 경우 문호의 흥기만이 아니라 기존의 문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임한주와 임한규는 송(宋)나라 때 교목세신가(喬木世臣家)의 후예이고 명(明) 태조 때에 이미 그 집안의 후광을 바탕으로 나라의 부름을 거듭 받아 등과하여 벼슬했으며, 또 영락제가 연왕(燕王)이었을 때 유시고우(幼時故友)의 관계였으니 일시적으로 향리에 칩거했다 하여 이를 두고 재야 사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주와 한규의 외삼촌은 이미 전문제 때 벼슬했다가 영락제가 즉위한 뒤 은퇴했으며, 이들의 처가 역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집안들이다. 한주의 재취 여부인 집안 역시 별열 가문이며, 희린의 처가가 되는 주상국 가문은 한주와 일찍부터 친밀한 교유가 있는 집안이다. 따라서 임씨 가문은 애당초부터 중앙 정계에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씨 가문을 순수한 의미의 재야 사족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연왕이 조카 전문제를 밀어내고 제위에 오른 일을 두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재야 사족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족이라면 재야든 재조든 영락제의 제위 찬탈은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 임한주 형제가 진정으로 벼슬에 관심이 없고 산림에 뜻을 두었다면 모친에

대한 효(孝) 때문에 한주가 뜻을 굽히고 조정에 나섰을 때 벼슬을 끝내 하지 않기로 한 한규는 굳이 서울에 함께 머무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규를 황제가 태청선생 물의객이라 하고 그 스스로 주역에 잠심하여 한유처사라 하였지만 실제 작품 내에서 그는 가문 내에서 거듭되는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성현공숙렬기」에서 임한규는 진정한 의미에서 백운의 길을 걷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벼슬길에 나선 한주와 가문 내의 역할 분담자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주가 희린을 가문의 적장자로 삼고 이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목적을 가문의 창성과 유지를 동시에 기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물외에 뜻을 두었던 인물인 한주가 벼슬을 하면서 갑자기 가문의 발전에 집착하게 된 것은 아니다. 가문의 유지와 발전의 문제는 그에게 본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가문을 단순히 혈통의 유지 계승이라는 점에서보다 사회적 위상의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친생자인 유린에게 조금도 사랑을 베풀지 않고 부인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도 있지만 가문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자(長子)의 후사(後嗣)가 없어 양자(養子)를 들였는데, 그 후에 장자에게 친생자(親生子)가 생겼을 때 그 집안의 종통(宗統)은 어찌되는가 하는 문제는 조선 후기에 실제로 벌어졌던 것이었다.⁽⁷⁾ 그런데 임씨 가문의 경우 양자인 희린으로 결정되는 과정처럼 가문(家門)의 종통을 잇는 적장자(嫡長子)의 선택에서 가문을 융성케 할 자질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18세기 사대부 가문들의 의식 경향을 엿볼 수 있게 한다.⁽⁸⁾ 즉 혈연으로 맺어진 가문을 하나의 이익 공동체로서 인식하지 않고서는 친생자를 두고 종자(衆子) 중에서 그보다 자질이 뛰어난 인물을 적장자로 선택하기는 어렵겠기 때문이다. 가문의 유지와 발전에서 혈연보다

(7) 박영희, 앞의 글에서 이 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작품 분석을 한 바 있다.

(8) 역시 18세기 소설인 「유효공선행록」, 「유씨삼대록」 연작에서도 이러한 종통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父의 양상과 그 세계관,” 관악어문연구(15), 1990. 참조

인물의 능력이 중시되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사족들의 의식 및 사회적 처지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될 성질의 것이다.⁽⁹⁾

이런 점에서 한주의 성격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희린이 가문을 흥기할 주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의 애정을 쏟는다. 자기와 여부인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희린이 그 처 주씨와 차마 금슬지락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자 원수 같이 여기는 여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자러 가지조차 한다. 반면에 여부인 모자가 가문을 어지럽힐 존재라고 인식하자 이 모자에게는 일고의 애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린의 불만의 상당 부분은 자기를 낳아준 부친의 애정을 조금도 받지 못한 데 있다. 한주는 여부인이나 유린을 은애(恩愛)로 이끌거나 감화시킬 의도는 없고 별로만 다스리려 한다. 이 점은 한규나 모친에 의해 거듭 지적되나 고쳐지지 않는다.

유린이 원망이 철골하여 왈, “더인이 원간 희으를 사랑치 아니믄 니르도 말고 전부터 공연이 허초고 난가홀 지식이라 님문 청덕을 썩러 바리리라 하니 희린이 더욱 업이 녀이고 세린이 비우스니 유린이 밍세하여 일세 중의 쥬유 공명을 훈 가지로 널 한을 뺏고져 호느이다.”(권3)

“(—)원너 네 증전부터 유린 모즈의게 인덕으로 교유호믄 업고 훈갓 정도곡네 만 직회여 더하면 엄숙호 빛과 준위호 거동으로 부즈의 반 점 년이호미 업서 미과를 보아도 종용이 경계하여 곳치게 아니코 다만 식험호 뿌지람과 미질만 더으니 맞치 희으만 과중호는 양호야(—)”(권23)

결국 여부인 모자가 희린을 해칠 수 없는 것이 끝내 천의(天意)임을 알고서 회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적인 대우를 할 뿐이다. 그만큼 편벽되고 경직된 인물이다.

작가는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런 유형의 가부장을 은연중 비판했다고 할 수 있다. 출장입상하는 능력의 소유자로서 사회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일지라도 가정 내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모친과 아우 한규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라도 임한주의 유린 모자에 대한 태도는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유린 모

(9)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가문 단위의 권력 관계가 형성된 것도 참고할 사항이다.

자의 반항에도 상당한 부분 타당성이 있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절대권을 갖고 있는 가부장의 가정내 횡포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가문 내에서의 실천 윤리의 역할

임씨 가문이 겪는 파란만장한 사건들은 결국 희린에게 종통이 이어지는 것은 하늘의 뜻임을 여부인 모자가 인정하게 되는 데서 끝난다. 아들이 이를 인정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계책을 다 썼지만 희린 부자의 제거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 더 이상 해 볼 도리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희린의 지극한 효성과 우애이다. 이 둘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이 작품에서 보다 중시하는 것은 후자이다. 여부인이 한왕의 역모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모든 죄과가 드러나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살아난 것은 결국 희린의 효성 때문인데, 그녀는 이 점을 실감하지 못하여 임씨 가문에 복귀한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을 완전히 돌리지 않는다. 유린이 마지막 시도까지 실패한 뒤 마음을 돌리고 그 사연을 적은 편지를 보고서야 희린의 효성과 우애를 절감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하면 희린으로 적통이 이어지는 가문의 질서에 여부인 모자가 동의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은 희린의 효성과 우애에 있다.

희린은 자기 몸을 버리는 효성과 우애를 실천함으로써 여부인 및 유린과의 모자(母子), 형제의 관계를 혈통으로 맺어지는 관계 이상으로 실천했다. 예전대 유린은 희린을 두고 명의상 형제지만 실은 4촌이라고 생각하는데 희린의 상상을 초월한 우애로 그것을 바꾸게 된다. 또 여부인에 대한 희린의 효성은 친생 자식도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시 말해 희린은 양자로서 여부인의 아들이 되고 유린의 형이 되었지만 친생 관계 이상으로 그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하니 종통의 계승이 혈통과 어긋나 생긴 갈등은 결국 효도와 우애라는 덕목의 실현을 통해 해소된 셈이다. 가문 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효도와 우애의 실현에서 양자(養子)가 친생자(親生子)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종통 계승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구성은 단순히 선악 관계로만 파악되어서는 안된다. 즉 혈통과 종통의 어긋남에서 생긴 갈등이 희린과 창홍의 희생으로 끝나거나 여부인 모자가 범망에 걸려 죽거나 하는 식으로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난다면 결국 혈연 공동체인 가문으로서의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종통이 친자에게 가든 양자에게 가든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실천해야 할 효도와 우애를 상위에 놓음으로써⁽¹⁰⁾ 임씨 가문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유린이 온갖 패륜을 저지르지만 역모에는 발을 빼는 것으로 이야기를 설정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모는 희린의 우애로써 덮을 수 있는 가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작품의 갈등 해소 방법은 대립하는 두 주체의 갈등을 두 주체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상위의 가치로써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단순한 선악 대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희린을 효와 우애의 화신으로만 볼 수 없다. 효와 우애는 가문 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부인과 희린이 저지르는 일은 가문을 족히 패망케 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가문의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죄악을 법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창성케 하고자 하는 가문을 스스로 깨는 일이다.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종통 계승 방향에 수궁하게 하여 통합시키는 방법이 최상이라면 그것을 누군가 실현해야 하고, 임한주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희린이 실천해낸 것이다. 실상 희린은 태허법사에게 천문비서를 배워 탁월한 능력을 지니게 되나 가문 내에서 그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종통을 자신에게 있게 하려는 한주의 의지와 그것을 뺏으려는 여부인과 유린의 의지 사이의 갈등을 온 몸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이 입장은 한주나 여부인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으로부터 거듭 고통을 겪는다. 한주로서는 희린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배척해야 할 여부인 쪽을 감싸고 나서니 문제이고, 여부인 쪽으로서는 자신들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한 장본인인데 적대적인 모습은커녕 효성과 우애로 대해오니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적대감을

(10) 여기에 부부 사이의 사랑도 첨가할 수 있다. 한주와 여부인의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임씨 가문의 큰 과제였다.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희린이 실천하는 효와 우애는 누구나 동의하는 유교적 실천 윤리이지만 첨예한 가문 내부의 갈등 속에서는 이 윤리 자체가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효와 우애가 가문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점은 재삼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적장자의 자리에 선 인물로서 가문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하고 가문의 질서를 잡고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특정한 쪽을 편들지 않는 수 밖에 없다. 이미 임한주는 친생자를 제치고 양자로서 적장자를 삼는 방법을 과단성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여부인 측의 사생을 건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그것은 파국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이다. 여부인 쪽의 저항 역시 희린과 그 아들 창홍을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것 역시 파국을 예고하는 것이다. 희린은 양측의 격렬한 충돌과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인내하면서 그 갈등을 자기의 과제로 삼아 효와 우애를 통해 해결했던 것이다.

사실 희린과 그 부인 주씨의 입공을 통해 임씨 가문은 더욱 영화롭게 되지만 희린이 주력한 것은 국가에 공을 세우는 것보다 가문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능력 있는 인물을 적장자로 선택한 일은 이처럼 커다란 댓가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무릅쓰고 혈통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관철했다는 것, 그만큼 가문의 융성이라는 현실적 이익이 우선시되었다는 것, 그 과정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효와 우애라는 실천 윤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요청되었다는 것 등은 재삼 주목되어야 한다. 희린의 인물 형상은 가문 내의 갈등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효와 우애라는 덕목의 실현을 통해 화합의 방향으로 해결하는 적장자의 한 인물형이라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런 인물형은 가족사(적) 소설에서의 갈등의 중심 인물형의 역사에서 검토해 볼 대상이다.

3. 규방 세계와 여성 형상의 특징

1) 여성 수난과 규방

종통 문제는 동시에 해당 가문의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부인의 경우 엄연히 임씨 가문의 총부(冢婦)이지만 친생자 유린이 적장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실제 그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희린이 여전히 가문의 적장자가 되는 것을 승복할 수 없는 이 모자(母子)에게 탈적(奪嫡)은 지상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납치, 독살, 암살 기도 등 별별 음모가 희린은 물론 그 아들 창홍에까지 미치는데, 급기야는 희린의 처 주씨, 세린과 그 부인들에게까지 마수가 뻗치게 된다.

남성으로는 역시 희린이 이들의 음모로 가장 큰 고난을 겪지만 여성으로는 희린의 처 주씨가 가장 큰 고난을 겪는다. 주씨는 한왕과 통정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임씨 가문에서 쫓겨나는데, 한왕으로 해서 거듭 시련을 겪고, 아들 창홍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별하고, 적소에서는 한왕, 반연화, 여부인 등이 각각 보낸 군사, 자객 등의 공격을 동시에 받아 사지에 떨어진다. 이러한 여성 수난은 그 자체로서 규방의 여성 독자들의 관심거리일 수 있다. 인고(忍苦)의 극단적 양상이라 할 만한 것이어서 독자들의 정서적 감응을 크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주씨는 절대절명의 사지에서 구출되면서부터 다시 임문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 과정 역시 일종의 극단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씨는 죽음 직전 태허법사의 구출을 받아 수미산 활인암으로 가게 된다. 여기서 천문지리를 통달하는 수련을 하고는 세상에 나와 여화위남(女化爲男)하여 왕각의 반란을 진압하는 대원수가 되어 공을 세우고 포로로 잡혔던 남편 희린을 구출한다. 이처럼 주씨는 여성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 점 역시 규방 독자들의 정서적 반응을 강하게 끌 수 있는 요인이다.

사실 주씨는 희린과 거의 동등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임한주는 남방을 순무하느라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고 희린은 한왕의 계교에 빠져 왕

각에게 포로가 되고, 역시 한왕의 계교로 세린의 부인 효장공주와 소씨가 어려움에 처하는 등 가문 전체가 커다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타개한 사람이 주씨이니 그녀는 희린에 못지 않는 가문 창달의 주역인 셈이다.

여성 수난이라는 점에서는 소소저도 빼놓을 수 없다. 세린과 일찌감치 어릴 적에 혼약을 맺고 몇 년을 기다려 결혼 당일에 황제에 의해 그 결혼이 파탄되고 우여곡절 끝에 재결합되었으니 우리 고전소설에서 흔히 보는 혼사장애 유형에 속한다.⁽¹¹⁾ 혼인 관계의 파탄과 가정으로부터의 분리와 수난 및 입공이라는 공식은 방각본으로 널리 유행한 여성 영웅소설의 공식과 상통한다. 여성 영웅소설의 등장인물이 여성 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씨와 소씨의 사연은 곧 규방의 여성 독자를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은 대부분이 고난을 겪거나 사연이 많다. 관태부인은 일찍 홀로 되어 한주, 한규 형제를 키웠고, 한주의 서매(庶妹) 소파 역시 일찍 홀로 되어 자식도 없이 친정에 돌아와 살고 있다. 희린의 빈실이 된 한소저 역시 부친이 죽은 뒤 사고무친하게 지냈고, 풍소저, 금화공주 모두 양녀로 길러졌다. 효장공주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남의 조강 자리를 무소불위의 황제의 힘으로 차고 들어왔으니 지각있는 여성이라면 고통스런 경우이다. 실제 작품 내에서 공주는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괴로워 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타개해 나간다.⁽¹²⁾ 한규의 처인 위부인만 어느 정도 평탄하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여성들을 사연이 있게 설정한 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방이라는 공간이 세파와 절연된 관념의 공간이 아니며, 그 속에 있는 여성들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생활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이에 대해서는 이상택, 낙선재본 소설연구—그 예비작업으로서의 혼사장애주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소설의 탐구(중앙출판, 1981). 참조

(12) 이 작품의 후편 「임씨삼대록」에 「구운몽」과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오거니와 효장공주가 소씨를 세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구운몽」에서 난양공주가 정경패를 양소유의 부인으로 인정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닮았다.

2) 규방의 지기(知己)지우(知己之友)

이 점은 이미 「구운몽」에서 잘 그려졌거니와 이 작품에서도 규방의 여성들은 서로를 지기(知己)로 인정한다. 공주와 소씨, 주씨와 한씨처럼 동일한 남자를 남편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쟁총(爭寵)하는 중에 서로를 적국(敵國)으로 보기 쉬운 여성들이 서로를 지기로 인식하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남편의 애정을 둘러싼 처첩 갈등을 정석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지기 관계는 허위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만 볼 이유는 없다. 활인암에서 서로 만난 주씨와 한씨는 「삼국지연의」의 도원결의를 본받아 결의 형제를 맺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지기가 상합하기 때문이다. 공주와 소씨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규방 세계 속이긴 하나 그 나름대로의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맺고자 한 것이다. 처첩의 모순을 호도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부부 사이의 지기(知己)지우(知己之友)의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희린과 주부인은 서로 지기 관계임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희린이 주부인이 화망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기(知己)의 부인을 잃었다는 점이다.⁽¹³⁾ 마찬가지로 주부인이 왕각에게 포로가 된 희린을 구하고 사경을 해매는 그를 약으로 구하는 것이나 여부인의 죄상이 탄로나 사형에 처해졌을 때 그대로 두면 희린이 반드시 따라 죽으리라 하여 여부인을 구하는 것도 자기를 지기로 대한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¹⁴⁾

부부유별(夫婦有別)이 강조되기보다 부부가 지기(知己)지우(知己之友)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 현상은 무엇일까에 대한 탐구가 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부부 사이를 지기(知己) 관계로 보는 것은 여성의 관점에서는 부인의

(13) 흥들며 님체찰은 지귀 부부로 엇지 참통흥들 참으리오(권10)

“(---)니 홀노 부부의 눈귀를 녀녀홀 뿐 아냐. 다만 금일부터 다시 규방 2온디 지귀 업스리니 오직 슬허흥노라.”(권10)

(14) “(---) 내 저를 지귀흥미 부부 대륜뿐 아닌고로 내 흥 목숨을 앗기지 아닐지라. 저적 출사흥도 정히 지귀를 위흥미니 도쳐지두흥여 녀부인을 고모로 위홀 뿐아녀 지귀의 가환을 붓드려(---)”(권 15)

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가부장제 하의 대가족을 배경으로 한 이런 소설에서 이 점이 강조되는 현상은 어떤 면에서는 실제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상이나 처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여성의 자존 의식과 규방에서의 갈등

이 작품이 규방 여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면모는 주씨, 효장공주, 소씨 등 희린 형제의 부인들이 대단한 자존심의 소유자로 그려지고 있는 점이다. 주씨의 경우 왕각의 반란을 제압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세워 단박에 임씨 가문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다음에는 친정에 가서 칩거한다. 즉 혐의를 쓰고 출문(出門)을 당한 그 자체에 대한 자괴심, 아들 창홍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 여성이면서 남성으로 변장하여 전장에 나갔던 일 등으로 해서 피세도은(避世逃隱)의 뜻을 내세우며 그녀는 남편과의 대면조차 꺼린다. 죽음을 염두에 둔 주씨를 복귀시키는 것은 임씨 가문으로서는 큰 문제이다. 주씨는 죽었다고 믿은 창홍의 생환, 친정 부모, 시아버지는 물론 남편 희린의 거듭된 설득과 위로를 받고서야 임문으로 복귀한다. 그녀의 뜻이 어느 정도 굳었는가는 사세 부득이 복귀할 수밖에 없게 되자 토혈(吐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자존심의 문제는 세린과 효장공주 및 소씨 사이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결혼식이 시작되는 순간 황제의 명으로 중단되고, 강제로 부마가 된 세린은 공주를 진심으로 받아 들이지 않게 된다. 그 까닭을 알게 된 공주는 스스로 소소저를 세린에게 돌려 보내는 일을 주선한다. 공주는 남의 자리를 권력으로 차지했다는 자괴감, 그로 인한 부마의 은근한 박대에 대한 저항감으로 해서, 소씨는 세린과의 혼사가 파탄이 된 뒤 닭 머리는 될지언정 소꼬리는 되지 않겠다고 하다가 결국 그 반실로 가게 된 것 등으로 해서 각자는 세린과의 원만한 부부 생활을 이루지 못한다. 이 문제는 여부인모자의 음모가 다 발각되고 가문 전체가 더 이상 변괴에 시달리지 않고 정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가문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부마와 공주 사이의 규방 내에서의 다툼은 심각해서 그 부친과 형은 물론 황제까지 개입하게 될 정도에 이르고 급기야는 부마가 공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공주는 부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냉혹한 인물 비평까지 감행한다. 말하자면 부부 사이지만 그 인물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는 냉철함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취 청파의 강개 왈, “저제 불초대를 어지리 제도하시미 이곳터시니 엇지 밧드지 아니리잇고마는 첩의 붓그럽고 누누흔 신세는 황야와 낭낭도 아라시지 못하니, 부마의 위인이 만일 속속의 혼 일만 효측하여도 군지 되리니 쇼데 감히 항거하리 오마는 맛춤 성문갑대의 심하고 현부형 교훈을 밧즈와 요힘 경박지 되지 아냐거니와 불힘하여 타문의 잇더면 취광상성하미 왕연의 우히오 위봉의 니웃시라.(—)” (권20)

여성의 자존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규방의 갈등은 대단히 미묘하면서 동시에 장기간의 심리전 양상을 띤다. 남성 우위라는 일반적 관습에서 남성이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없다. 예컨대 공주는 부마와의 대화에서 명분이나 조리, 심리 파악 어느 면에서나 부마에 지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에는 부마가 명분상 우위에 섰지만 소씨와의 혼인 주선과 소씨의 구원 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역전되고 만다. 부마를 규방에서 걸돌게 만드는 데는 소씨 역시 공주에 못지 않다. 이처럼 규방에서의 심리적 갈등을 차밀하게 묘사해 내고 있는 점에서도 이 소설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요컨대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타인이나 상대방이 인정해주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더 이상 순종만 하는 여성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규방이라는 공간을 나름대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로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규방 내의 은밀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그 남편에게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여성의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잠자리에서의 다툼은 그것 자체로 독자의 흥미거리가 될 수 있다.⁽¹⁵⁾ 특히 부마인 세린

(15) 부부 사이에서의 이러한 문제가 매우 독특하게 전개되는 것이 「하진양문록」에서의 진세백과 하옥주의 경우이다. 서대석, 하진양문록, 김진세 외, 한국고전소설작품론(집문당, 1990). 참조

의 경우 부부 사이의 심리전으로 인해 결혼한 지 수년 동안 동정(童貞)의 상태로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이 동년배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능연군이 장난으로 부마의 팔에 비홍을 찍고, 그 뒤 친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한림이 부마의 부부 화락을 위해 태조황제에게 고촉하는 희극을 벌였는데, 실제 공주는 꿈에 태조 황제의 노여움을 전하는 황건역사를 만난다. 이런 사연 끝에 부마는 병으로 기운이 약해진 공주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게 되어 드디어 팔의 비상주표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외당에 모인 친우들에게 확인 당한다. 이처럼 공주와 부마 사이의 침실 갈등을 가문 내부는 물론 궁중과 친우들까지 흥미로운 관심거리로 삼고 있는 것에서 이러한 내용이 독자들의 흥미거리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인물 형상이 부마이다. 그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농담도 잘 한다. 침중한 장남에 비해 둘째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졸지에 부마가 되는 바람에 이름 그대로 황제의 사랑스런 사위로서의 역할 밖에 주어지지 않아 남아로서의 포부를 펼 수가 없다. 바로 이 점이 그에게는 불만 사항이다. 그는 한왕과 대립하여 다투기도 하나 부마라는 특수 지위 때문에 일반 신료와 같을 수 없다. 작품 말미에 돌용의 침입에 그가 대원수로 나가는 것은 이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그가 겪는 주갈등이란 소씨와의 혼사 장애를 비롯한 여성과 규방 내에서 벌이는 갈등들이다. 기껏해야 공주와 소씨를 상대로 자존심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그는 외당의 인물이지만 동시에 규방세계에 속한 인물이기도 하다. 예컨대 공주가 아들을 낳은 뒤에는 공주 뒷바라지에 너무 열심이어서 규방사령이란 놀림을 받을 정도로 그는 역할상 규방 내의 인물이다.

요컨대 규방 세계에서 여성들이 서로를 지기 관계로 설정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를 중시하며, 나아가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때 여성의 자존의식을 최후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점은 부부라는 수평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전근대적 사회에서 여성이 규방 밖을 나설 수 없는 상황이 기본적 전제라면 여성의 출장입상은 그러한 폐쇄성의 환상적 대리만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기 관계의 정립이나 자존의식의 확립 등은 규방 세계를 여성

의 주도적 세계로 재편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부마가 규방사령으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은 이러한 주도권의 확립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규방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부에서의 여성들의 세계가 미묘하고 섬세한 심리의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점 역시 여성들의 의식 세계의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4. 욕망의 세계와 악인형의 특징

대체로 사대부 규방에서 읽힌 장편 소설들은 흥미로운 읽을거리로서, 여성 교양(글씨, 지식)의 함양 수단으로서 그 독자적 위상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현공숙렬기」 역시 인물의 행동이나 표현에서 그러한 계층적 성격을 뚜렷이 드러낸다. 한주 세대나 희린 세대가 일상 생활에서 보이는 언행(言行)은 「소학(小學)」에서 가르치는 바 그대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정신성(昏定晨省)이나 외출할 때 방소(方所)를 허락받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라든가 아비된 자 자식을 은혜를 주로 한다는 것, 어른이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도리 등등이 일상 행동이나 커다란 사건을 통해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양반 가문의 일상의 법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작품은 독자의 수신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자면, 귀족 가문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의 실제 내용은 그렇게 고상하지만은 않다. 예컨대, 황제는 마음에 드는 사위를 보기 위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재상가의 혼례식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세련을 궁중으로 불러 들여 부마로 삼는가 하면, 한왕은 색욕을 위해 사대부가의 담장을 넘어 규방을 침입하기도 하고, 재상가의 여식이자 부마의 원 정혼자인 소씨를 납치하기도 한다. 사대부 자제인 유린도 역시 사대부가 규수를 겁탈하기 위해 담을 넘는다. 역시 사대부가 규수인 반연화는 임희린의 풍채를 한번 보고는 상사병에 걸리고, 모계를 써서 그 후실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날 밤 불쑥 잠입한 한왕과 즉석에서 사통하고 결국은 한왕에게 몸을 의탁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여씨와 유린은 적통을 빼앗기 위해 납치, 독살,

암살 등을 서슴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처럼 교목세신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은 모두 욕망과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런 내용에 못지 않은 분량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부마와 공주 사이의 침실에서 갈등처럼 규방의 은밀한 곳에서의 남녀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갈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의 서술과 그 표현은 사대부가의 법도와 그에 걸맞는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의 사연인즉슨 인간의 본능적 욕망 때문에 벌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하류(下流)의 낮은 글씨로 쓰여졌다고 비판⁽¹⁶⁾받기도 한 방각소설(坊刻小說)의 등장 인물들의 욕망과 다를 바 없다. 시정의 상업적 출판물로 등장한 소설과의 이러한 공통점은 그 차이점에 못지 않게 주목되어야 할 사항이다. 장편 양식이라는 것, 그려진 세계가 벌열 가문이라는 것, 인물의 행동과 언어가 그러한 세계의 규범에 충실하다는 것, 상당한 지식을 동반한 전아한 문체로 표현되었다는 것 등이 커다란 특징이긴 하나 갈등의 가장 기본적 요인이 개인의 본능적 욕망이나 가문의 융성이라는 집단적 욕망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의 내용 역시 중세 해체기 사회상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현공숙렬기」와 같은 장편소설이 사대부가의 규방에서 읽혔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규범적 세계를 그렸으리라고 보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욕망의 강렬함이나 직접성, 추악한 음모의 대담성이나 극렬함에서는 시종의 방각소설이 따라 올 수 없는 형편이다. 규방에 이런 내용의 소설이 수용되었다는 것은 규방 여성들의 취향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단서이다.

이러한 욕망의 세계가 서술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은 특히 악인형의 창조에서 주목할만한 진전을 이룩했다.

우선 악인형으로 등장하는 여부인과 희린은 매우 끈질긴 집념의 소유자로 그려져 있다. 여부인은 어린 희린을 납치하여 모살하는 데서부터 적손의 자리를 자기 자식으로 이으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질(姨姪)인 반관옥 남매를 소모품으로 이용해가면서 인륜에 벗어나는 일들을 서슴없이

(16) 홍희복의 「제일기언」 서문에 이런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저지른다.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가문 내에서 주어지는 역할은 잘 해낸다. 바로 이 점이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개탄스러운 것이었다. 희린의 지극한 효성이 그녀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과 대응을 이룬다. 그녀는 한왕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임씨 가문 종통의 문제는 이제 다시는 뒤집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까지 자신의 음모가 낱낱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는다.

“내 전세의 희린 요종으로 무슨 원업이 잇관대 십년을 노심초스하여 종시 저는 무스하고 나는 이의 밋쳐 만디의 악명을 무릅쓰고 죽으니 당당이 모진 귀신이 도여 희린과 혼 가지로 음스의 가 송스하리라. 내 으히 유린은 철인 명식이라 힘힘이 죽지 아니리니 구턴의 와신상담을 범 바드리라. 말노 좃츠 독괴 스벽의 쏘이니(---)”(권 15)

조정에서 내린 사약을 앞에 두고 여부인이 한 말이다. 그녀는 죽음을 당할 뻔 하다가 대신 친정에 내쳐졌는데, 희린이 목숨을 걸고 부친에게 호소하여 자신을 임문으로 복귀하도록 할 때에도 임문의 총부의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는 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자신은 총부로서의 권리, 유린은 적장자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집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유린 역시 한왕의 모역 실패로 망명 죄인이 되어 더 이상 가망성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형탈적(弑兄奪嫡)의 일념을 버리지 않는다. 이름을 숨기고 자기 형수들과 비길 만하다고 보아 계교로 풍소저와 결혼한 뒤, 총명한 풍소저에게 정체가 탄로나고, 나아가 개과천선하기를 권유받은 뒤에도 그는 선인을 찾아 도술을 배워 희린을 해치려 하고, 그 선인이 ‘오(悟)’자를 써주며 혼계해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형을 살해해 보겠다고 나선다. 이제는 적장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희린을 해치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

작가는 이 두 인물로 하여금 그 궁극에까지 가게 한 다음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음모가 발각되고 그 즉시 죄에 대한 자책감으로 개과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다기한 과정을 통해 그 극에 이르게 한 다음 자

연스럽게 돌아오게 하는 서술 과정을 통해 개과천선이란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 이루어짐을 잘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악인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계략으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절망에 기초한 깨달음⁽¹⁷⁾에 가까운 것이어서 제기하는 문제 의식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우선 가문 내부의 갈등이 상호간의 설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제 갈길을 끝까지 가고 나서야 해결된다는 점은 가문이 상당한 정도로 구성원들의 이해 관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악인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궁극적인 곳까지 가서야 절망하고 돌아선다는 설정은 인간의 욕망 그 자체가 절대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여부인은 적장자 자리를 뺏는 것을 자기의 의지로도 단념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녀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때마다 그녀의 욕망은 더욱 굳어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절망에서 돌아섰다는 것은 욕망의 절대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맥에서 반연화의 행적도 이해될 수 있다. 그녀는 욕망에 거의 즉물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형이다. 희린의 풍채를 한번 보고 욕정에 사로잡히고, 그에게 버림받는 생활 속에 월장해 들어 온 한왕에게 즉석에서 몸을 맡기며, 가문의 명예 따위는 돌아보지 않고 한왕의 잉침으로 들어간다. 어떤 국면에도 그녀는 현재적 욕망에 충실할 뿐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는다. 「사씨남정기」에서 잘 그려진 교녀의 형상 이래 사대부가의 생활을 묘사하는 소설 속에서 이런 악인형의 창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17) 유린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뒤 희린에게 구출되어 와서는 모친 여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중에 “인증승턴이나 턴정승인”, “턴망야오 비전지죄” 등의 말을 쓴다. 불가항력적이어서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절망에서 마음을 돌린 것임을 말해준다. 여부인 역시 희린이 대공을 세우고 점점 그 지위가 반석과 같이 되고 자기 주위에는 아무 심복이 없는 절망감 속에서 유린의 편지를 받고 마음을 바꾼다.

5. 결

조선 후기 궁중이나 사대부가에 주로 수용된 장편소설이 이룩한 소설사에서 진전은 여러 가지이다. 사대부가의 생활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들은 재인식될 필요가 있거니와 계후(繼後) 문제를 비롯하여 세대간의 성격의 차이, 규방 의식의 변화 등 다른 소설들이 그려내지 못한 사대부 집단 내부에서의 변화를 잘 그려내고 있다.

「성현공숙렬기」는 계후 문제를 둘러싼 중심 갈등을 주축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정치적 갈등과 규방 세계의 섬세하고도 미묘한 심리적 갈등까지 매우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계후 문제에서 추출되는 가문 집단의 이익 집단적 성격과 그 주체들의 의식은 조선 후기 사족 집단의 의식의 변화와 결부하여 보다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여성들의 자존 의식이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점과 독특한 악인형의 형상 역시 이 작품의 특징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편 이 작품은 시간상 역전(逆轉) 서술처럼 소설의 기법상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다. 예컨대 주씨가 여씨, 한왕, 반연화 등의 삼면 공격을 받고 난 뒤에 일단 죽은 것으로 처리하여 유골과 유물로 장례까지 치르는 사건을 서술한다. 그 뒤에 왕각의 반란에 참모로 출전한 희린이 한왕과 반관옥의 흥계에 빠져 포로가 되고, 또 한왕이 패배하는 등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주소저가 다시 나타나게 하고는 주소저가 등장하기까지의 사연을 과거의 시점으로 되돌아가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상의 진전 등은 본론에서 검토한 사항들과 함께 후편인 「임씨삼대록」에서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자 : 아주대학교 인문대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